

No. 2013-18

일본 경제 동향

(Japan Weekly Economic Digest)

2013. 04. 29

- ① 일본경제지표
- ② 주간경제이슈
: 환율 관련 한·일의 대응과 엔저의 향방
- ③ 경제정책동향
- ④ 일본기업동향
- ⑤ 한국관련워치

1 일본경제지표

□ 주간 시황지표

- 엔화환율 : G20의 엔저용인 영향으로 지난주보다 엔저 폭 확대

구 분	4.22(월)	4.23(화)	4.24(수)	4.25(목)	4.26(금)
엔화의 대미달러화 환율(미달러당)	99.80	98.80	99.65	99.54	98.80
엔화의 대원화 환율(100엔당)	1,120.18	1,128.98	1,126.34	1,124.71	1,121.02
닛케이평균주가(종가)	13,568.37	13,529.65	13,843.46	13,926.08	13,884.13
장기금리(10년물 국채금리, 연리 %)	0.610	0.585	0.590	0.580	0.590

□ 주요 거시경제지표

- 2012년도 수출은 ▲2.1%, 수입은 3.4% 증가, 무역수지는 ▲8.2조 엔으로 전년보다 적자폭 확대
 - * 對한국 수출 4.5%, 수입은 0.2% 감소, 무역수지는 16.9천억 엔 흑자
- 2013년 3월중 수출과 수입은 전월대비 각각 18.9%, 8.2% 증가
 - * 對한국 수출은 전월대비 22.6%나 증가한 반면, 對한국 수입은 3.8% 감소

구분	2011	2012	2012			2013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실질GDP증가율(연율,%)	0.3	(2.0)	0.2			...		
수출(천억엔)	653	639(637)	51	50	53	48	53	63
수입(천억엔)	697	721(707)	57	59	59	64	61	66
對한국 수출	52.1	49.7(49.1)	3.94	3.93	4.35	4.01	4.25	5.21
對한국 수입	32.9	32.8(32.4)	2.70	2.82	2.84	3.12	2.92	2.81
직접투자(억달러)	(1,157)	(1,223)	339			...		
對한국 투자	(24)	(40)	9.4			...		
소비자물가(%)	0.0	(0.0)	0.0	▲0.3	▲0.1	▲0.3	0.1	...
실업율(%)	4.5	(4.4)	4.2	4.2	4.3	4.2	4.3	...
경상수지(천억엔)	76.2	(47)	3.8	▲2.2	▲2.6	▲3.6	6.4	...
엔화 對미달러	79.1	82.9(80.1)	79	80.9	83.6	89.2	93.2	94.8
환율 對원화(100엔)	(1,391)	(1,413)	1,401	1,344	1,288	1,197	1,166	1,161
외환준비고(기말, 천억달러)	12.9	12.5(12.7)	12.7	12.7	12.7	12.7	12.6	12.5
국채금리(10년, 연리%)	0.985	0.560	0.775	0.700	0.795	0.740	0.665	0.560

주1) ()는 역년(1~12월)기준

2) 소비자물가, 실업률, 환율, 국채금리는 기간평균, 자료: 일본경제신문, 재무성, 한국은행

□ 주요 보고서 워칭 사이트(report watching site)

- 『통상정책을 둘러싼 움직임』 경제산업성, 4월20일
*출처:http://www.meti.go.jp/committee/summary/0003410/017_haifu.html
- 『2013년판 불공정무역보고서 : WTO협정·경제연대협정·투자협정으로 본 주요국의 무역정책』 경제산업성, 4월23일
*출처:http://www.meti.go.jp/committee/summary/0004532/2013_houkoku01.html
- 『양적·질적 금융완화의 효과와 리스크』 미쓰이스미토모신탁은행, 4월25일
*출처:http://www.smtb.jp/others/report/economy/13_1.pdf
- 『2012년 일본의 산업경쟁력에 관한 조사보고서』 경제산업성, 4월25일
*출처:http://www.meti.go.jp/meti_lib/report/2013fy/E002479.pdf

② 주간경제이슈 : 환율 관련, 한·일의 대응과 엔저의 향방

□ G20에 의한 엔저용인의 배경과 일본의 대응

- G20회의 성명에서 디플레이 탈출이 목적이라는 일본측 주장과 경쟁력강화를 위해 환율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명기
- 닛케이신문에 의하면, 일본은 구로다 일본은행 총재의 국제적 인맥을 최대한 활용하여 G20에서 아베노믹스를 이해시키고 엔저에 대한 비판을 봉쇄할 수 있었다는 것
 - 재무관과 아시아개발은행 총재를 역임한 바 있는 구로다 총재의 두터운 인맥이 이번에 유감없이 발휘
 - 버냉키 FRB의장, درا기 유럽중앙은행총재 등 선진국의 중앙은행총재 뿐 아니라, 신흥국의 주요 인사들과도 폭넓게 사전 대화를 나누었다는 것
- 또한 일본의 금융완화가 초점이 되지 않은 데는 신흥국들의 사정도 작용
 - 한국은 북한 리스크보다도 엔저의 영향이 크다는 점을 강조, 엔저를 의제로 다루도록 요구했지만, 미국에 원화매도 개입 관련 데이터를 공표하지 않아 미국 재무성의 불신을 샀다는 것
 - 중국은 달러화와 연동성이 높은 외환관리제도를 유지하고 있어 정면으로 엔저비판을 하기가 어려웠다는 것
 - 선진국들의 금융완화정책을 줄곧 비판해온 브라질도, 인플레이 타개를 위한 금리인상을 단행, 이번에는 자국통화가치 상승에 의한 인플레이억제 효과가 예상되는 선진국의 금융완화책을 비판하기 어려웠다는 것

□ 기업들의 대응

- 일본기업들은 작년까지 엔고 국면에서 경영체질 개선과 경영합리화 노력을 해오던 차에, 엔저라는 순풍을 맞아 수익이 증가
 - 엔저환율 감응도(1엔 엔저 시 연간 영업이익의 증가분)로 볼 때, 주요 제조업체들이 적게는 수억 엔에서 많게는 수백억 엔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도요타의 경우 350억 엔에 이르고 있음
- 연료 등을 수입하는 전력업체와 일부 소비 관련 기업들에게는 엔저가 역풍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주요 기업들 전체로는 현재 엔저로 인한 디메리트보다는 메리트가 더 크다는 것이 중론

□ 한국기업들은 원저에 안주

- 반면, 한국기업들은 원저에 안주했다고 닛케이신문에서 보도

- 작년 12월 초에 비하여 원화의 對미달러가치는 3%이상 상승했으나, 對 엔화가치는 17%나 상승함에 따라, 현대자동차의 연결영업이익율이 2자리대의 감소율을 기록
- 포스코도 1/4분기 강재 단가의 하락 영향으로 연결영업이익이 5% 감소
- 한국기업 가운데는 삼성전자와 같이 경영실적이 개선되고 있는 대기업도 있으나, 이 같은 기업은 예외적인 존재
- 삼성전자는 제조 장치와 재료 등 부자재를 對일수입에 의존하는 외에, 주력인 휴대전화는 생산의 상당부분을 베트남 등 해외로 이전
- 자동차의 경우, 일본은 해외생산비율이 60%이상에 달하나, 한국은 40%대
- 한국기업들은 한마디로 원저에 안주해왔기 때문에 환율변동에 대한 대응이 부진하며 특히, 비가격요소의 경쟁력이 부족하다는 지적
- 한국에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가 큰데, 환율변동의 대응수단의 하나인 해외진출이 어려운 중소기업들에게는 원고가 심각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것
- 현대경제연구원의 시산결과에 따르면, 달러당 엔화가치가 96엔에서 100엔으로 하락할 경우, 한국의 수출은 3% 감소, 110엔으로 하락하게 되면, 수출은 11% 감소

□ 엔저행진, 오래 못가

- 단기적으로는 G20의 엔저용인 성명으로 엔저가 탄력을 받아 가속화 될 것이라는 견해가 많음
- 2009년 4월 이후 4년 만에 달러당 100엔대를 돌파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과 함께, 엔저 성명이 발표된 19일 뉴욕시장에서는 달러당 99엔 69전까지 엔화가치가 하락
-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현재 미·일의 금융정책을 전제로 할 때, 엔화는 2014년 말에 달러당 115엔으로, 일본의 적극적인 금융완화가 성공할수록 엔저가 가속되어 각국을 더욱 자극시키게 될 것으로 관측
- 특히 G20회의에서 미국으로부터 재정지출 확대를 요구받았던 독일은 일본에 대한 금융완화 용인이 일시적이라는데 G20의 의견이 일치했다는 것
- 또한, 가일층의 엔저를 경계하는 미국이 일본의 적극적인 금융완화를 주시한다고 견제구를 던지는 등 대립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음
- 5월 10~11일 예정인 G7 재무상·중앙은행총재 회의 등을 앞두고 재정, 환율 문제를 둘러싼 줄 달리기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

③ 경제정책동향

□ 아베노믹스 1단계 성장전략 발표

- 아베총리는 19일, 6월 발표 예정인 성장전략 중 여성 관련 분야와 의료분야를 골자로 한 제1단계 전략을 발표
 - 아베 총리는 성장전략의 키워드로 도전, 해외전개, 창조를 언급하면서, 이번에는 인재활용과 의료분야를 집중 논의하고, 5월 이후에는 농업의 규제완화 등을 추가하겠다고 함
- 여성분야는 여성의 활동을 성장전략의 한 근간으로 설정, 금년도부터 2년간 20만명, 5년간 40만명을 보육할 수 있는 환경을 정비하여 대기아동 문제를 해소하는데 목적을 둠
 - 향후 2년간을 대기아동 해소를 위한 「긴급집중대응기간」으로 지정하여 지방자치체와 공동 대응
 - 도시지역 보육시설의 용지부족에 대응하기 위한 임대방식이나 국유지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직장 내에 보육시설을 설치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요건을 완화해줄 방침임
- 의료분야는 세계 최정상 수준의 건강·장수 사회에 기반을 둔 관련 성장산업을 창출하여 대내외 수요를 개척하는 데 목적을 두고, 특히 성장전인차 역할이 큰 의료·건강 분야를 성장전략의 발판으로 설정
 - 아베총리는 조만간 UAE를 방문하고 일본UAE첨단센터 설치 등에 합의할 것이라는 점도 언급하는 한편, 같은 시기에 방문 예정인 러시아에서도 입자선 치료시설의 건설협력도 추진할 계획
 - 민·관 공동으로 의료관련 기기나 서비스를 해외에 수출하는 조직도 신설할 계획
 - 아베총리는 iPS세포를 활용한 재생의료 및 신약은 일본이 연구 분야에서 세계 최정상 수준이나 실용화면에서는 크게 뒤져 있다고 지적
 -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제품의 승인을 대폭 단축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이번 국회에 제출, 의료기기의 승인에 소요되는 심사기간을 단축
 - 연구에서 실용화에 이르기까지 관·민 협동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미국 국립보건원(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 NIH)을 모델로 한 일본판 NIH를 창설할 방침도 제시
- 한편, 노동력을 제조업에서 의료·간병서비스 등의 성장산업으로 이동시키는 정책을 추진, 종업원들의 재취업지원을 실시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충할 계획
 - 일거리가 없는 젊은 층이나 프리터(free arbiter)를 시험적으로 고용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도 실시할 방침

□ 일본 · ASEAN간 새로운 금융협력

- 일본이 ASEAN 10개국의 국채를 구입함으로써 ASEAN국가들의 재정자금 조달을 지원해주는 방식의 새로운 금융협력을 실시하기로 함
- 이는 ASEAN국가들의 성장을 지원할 목적으로, 선진국에 비하여 유동성이 부족한 아시아 지역의 채권시장에 자금을 공급하는 방식인데, 아시아 국채로 운용하는 상장채권신탁에 대한 투자를 상정하고 있음
- 이와 함께 태국,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필리핀과 2국간 달러를 유통할 수 있는 통화스왑협정 체결 · 확충에도 합의
- 한편, 현지 중앙은행이 일본 국채를 담보로 일본은행들을 통해서 현지 일본기업들에게 대출해주는 방식과 함께, 엔화와 현지통화를 직접 거래하는 방안도 검토 중

4 일본기업동향

□ 가와사키중공업 · 미쓰이조선 경영통합 교섭

- 세계적인 조선 · 중기 업체인 가와사키중공업과 미쓰이조선이 경영통합을 위한 교섭에 착수
 - 일본조선업계에 의하면, 이르면 2014년에 건조선이 거의 사라지는 「2014년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에 기술력을 활용하여 성장분야인 환경 · 자원 분야에서 강점을 발휘, 한국기업들을 추격할 수 있을 것인가에 관심이 집중
 - 나아가, 양사의 교섭을 계기로 향후 업계재편의 움직임도 가속화될 전망이다
- 조선 · 중기분야는 1960년 합병된 이시카와지마하리마(IHI)가 발족한 이후, 50여년만의 대형합병인데, 실현되면 연결매출액이 2조엔 규모로 조선 · 중기업계에서 미쓰비시중공업에 이은 초대형 기업이 탄생
- 경영통합의 배경은 그동안 엔고와 저임금을 배경으로 높은 시장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는 한국과 중국기업에 대항하고, 「2014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경쟁력강화가 필요하다는 데 있음
- 가와사키중공업이 정유설비 등에 강점이 있는 미쓰이조선그룹과 협력하게 되면, 인프라 등 성장가능성이 높은 사업을 한층 강화시킬 것으로 보고 있음
 - 가와사키중공업은 이미 중국에서 세계 최대급 해운회사를 설립, 현지생산에 나서고 있음
 - 2000년에 가와사키중공업과 합병교섭을 추진한 IHI가 2013년 1월 조선자회사를 JFE 계열 조선자회사와 통합하여 저팬마린유나이티드(JMU)를 발족함에 따라, JMU를 중심으로 한 재편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음
- 미쓰비시중공업도 일본 내 조선능력을 축소, 중국 및 인도에 대한 기술공여로 활로를 찾고 있는데 가와사키와 미쓰이조선이 통합을 계기로 글로벌 최적생산체제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인가가 경쟁력의 관건이 되고 있음
- 그러나 통합효과를 둘러싼 회의적인 시각도 있음
 - 통합기사가 발표된 22일 주식시장에서는 미쓰이조선소 주가가 13%나 상승한 반면, 가와사키중공업의 주가는 1% 하락
 - 경영통합으로 일정 부분 비용절감효과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이어질지는 의문이라는 지적

5 한국관련위치

□ 한국산 휘발유의 일본시장가격 하락과 대일 수출 확대 가능성

- 한국산 휘발유의 일본 내 현물시장가격이 하락, 대일 수출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관측
 - 현재 일본에서 한국산 휘발유가격은 가장 비쌌던 2월 중순에 비하여 15% 하락, 일본산 휘발유와 거의 같은 수준
 - 이는 원유가격 하락과 아시아지역에서 석유제품의 수급완화의 영향인데, 그동안 한국산 휘발유는 엔저·원고의 영향으로 대일 수출이 감소
- 일본의 휘발유 수입량은 일본 내 판매량의 5% 전후로 수입휘발유의 약 90%를 한국산이 차지
 - 한국산 휘발유 수입이 다시 증가되면 일본산 휘발유 가격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관측
- 일본 에너지정보회사인 림정보개발에 의하면, 2013년 2월에는 한국산이 일본산보다 8엔 정도 높았으나, 현재는 리터당 73엔 전후로 일본산 휘발유가격과 거의 같음
- 한국산 휘발유가격 하락 배경에는, 중동산 두바이원유 가격의 하락과 함께, 아시아 지역의 지표인 싱가포르 시장의 휘발유 가격도 2월 중순에 비하여 20% 하락
 - 한국은 휘발유의 수출비율이 높고 특히, 싱가포르 시장의 가격에 연동되기 쉽기 때문에 아시아지역에서의 수급완화가 수출가격 하락으로 이어짐
- 석유제품을 수출하고 있는 중국, 한국, 일본산 휘발유는 아시아시장에서 남아도는 상황인데, 이는 정유소를 정기수리하고 있는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에서 석유제품 조달이 부진하기 때문임
- 엔저로 일본의 휘발유 수입량도 감소추세에 있는데, 경제산업성에 의하면 2월 수입량은 전월대비 16% 감소. 엔저가 확대되기 전 작년 10월과 비교하여 35% 감소
- 그러나, 한국산 휘발유가격이 하락했기 때문에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이 다시 증가할지 모른다고 닛케이 신문은 전하고 있음
 - 일본의 수입량은 일본 내 판매량의 10% 미만이나 저가 한국산이 유입되면 일본산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관측